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장 윤 희**

1. 서론

《舊譯仁王經 上》(이하 《舊仁》)은 지난 1973년 충남 서산 文殊寺에서 금동여래좌상 복장품 중의 하나로 발견된 구결 자료로서, 2, 3장, 11, 14, 15 등 다섯 장만이 낱장으로 남아 있는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국어사 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귀중한 국어사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한문 원문의 내용을 우리말의 어순으로 읽고 부분적으로는 원문의 한자를 우리말로 새겨 읽는 釋讀口訣法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석독구결 자료들을 국어사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 국어 사실은 그동안 국어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던 전기 중세국어나 그 이전 시기 국어 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차자 표기법상 향가 자료와의 관련성이나 국어의 문법사적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 이 논문은 1999년 2월 9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구결학회의 제20회 공동연구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소 손질한 것이다. 지정토론자였던 이장희 선생님과 당시 토론에 참여하여 많은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 강사

《舊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독법이나 구결자, 구결토의 특수성 등이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으므로,[1] 《舊仁》을 본격적인 국어사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舊仁》의 구결에서 발견되는 국어의 종결어미를 분석하고 그 용법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문맥을 고려하여 종결어미 형태소를 확인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때 형태소 분석 작업은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석된 각 종결어미들이 보이는 용법상의 특성을 15세기의 것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단 종결어미의 기술을 위해서는 문장 종결법과 종결어미를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졸고(1998ㄱ)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2. 설명법 어미

2.1. 설명법 어미의 분석

설명법[2] 어미 가운데 《舊仁》에서는 평서법의 '-ㅣ(다)'만이 나타난다. 이 어미는 다양한 요소들과 통합하는데, 편의상 동사 어간을 '호-', 형용사 어간을 '하-', 계사 어간을 '이-'로 대표하여 통합례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선접 요소는 '-다' 바로 앞에 통합한 선어말 요소로서, 선어말어미일 수도 있고 선어말 요소들의 통합체일 수도 있다.[3] 괄호 안에는 실제 문증되는 어형을 보인다.

---

1) 《舊仁》에 대한 연구로는 심재기(1975), 남풍현·심재기(1976), 이동림(1982), 남풍현(1986), 김영만(1986), 김두찬(1997), 남성우·정재영(1998) 등 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舊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승재(1991)도 《舊仁》의 구결자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졸고(1998ㄱ)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설명법 안에는 평서법, 약속법, 소망법, 경계법 등이 포함된다.

3) 다음의 표에서 선어말 요소의 통합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읎-'과 '-앗-'이다. 이들을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파악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언하

선행 어간 / 선접 요소	ᄒᆞ-	하-	이-
∅	ᄒᆞ다 (ㅅㅣ)	하다 (無ㄴㅣ)	이다 (ㅐㅣ)
-ㅏ(겨)-	ᄒᆞ겨다 (ㅅㅏㅣ)	하겨다 (如ㅣㅅㅏㅣ)	이겨다 (ㅐㅏㅣ)
-ㅏᄂᆞ(누)-	ᄒᆞ겨누다 (ㅅㅏㅏㅣ)		
-ㅂᄂᆞ(느)-	ᄒᆞ고ᄂᆞ다 (蓋ㅅㅗㅂㅣ)		
-ㄴ(시)-	ᄒᆞᄂᆞ(~ᄂᆞ기)시다 (ㅅㅂㅎㄴㅣ)	하ᄂᆞ(~ᄂᆞ기)시다 (無ㄴㅂㅎㄴㅣ)	
-ㄹ(오)-	ᄒᆞ악(~아기)시오다 (說ㅋㅎㄴㄹㅣ) ᄒᆞᇰ고ᄂᆞ오다 (數ㅅ白ㅁㅏㄹㅣ)	하ᇰ오다(無ㄴ白ㄹㅣ)	이오다 (ㅐㄹㅣ)
-ㅎㄴ(읎)-	ᄒᆞ심짜 (ㅅㄴㅎㄴㅣ) ᄒᆞ시움짜 (居ㅅㄴㅎㄴㅣ) ᄒᆞ겸짜 (爲ㅋㅏㅎㄴㅣ) ᄒᆞᇰ움짜 (說白ㄹㅎㄴㅣ)		
-ㅋㄴ(앗)-			이앗다 (ㅐㅋㄴㅣ)

이 통합례들을 비교해 볼 때 '-ㅣ(다)'는 형태소 분석 원리인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 '-다'는 표에서 보듯이 동사, 형용사, 계사 어간에 직접 통합할 수 있었는데, 《舊仁》에서 이렇게 어간과 '-ㅣ'가 직접 통합한 경우는 '不矣ㅐㅣ(15, 5)' 외에는 모두 피인용절 등 하위문에서만 나타나고, 이때 용언 어간으로는 '有ㄴ(잇)-', '無ㄴ(없)-'이 온다.[4]

《舊仁》에서 '-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 佛ㄱ 諸ㅋ 道果ㄴ 得ㅏㄱ 實天衆ㅋ十 告ㄴㄹ 善男子ㅋ 是ㅐ 月光王ㄱ 已ㅋ 於過去ㄴ 十千劫ㄴ 中ㅋㄴ 龍光王佛法ㄴ 中ㅋ十ㅅㅋ 四住ㄴ

기 어렵다. 백두현(1997: 40-41, 85-88)에서는 '-ㅎㄴㅣ(읎다)'를 '-ㅎㄴ-'과 '-ㅣ'로 다시 분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의 형태처럼 붙어 쓰이는 요소로 보았고, '-ㅋㄴ(앗)-'은 '-ㅋ-'와 '-ㄴ-'의 통합체로 파악했다.

4) 이는 모든 석독구결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는 계사 어간과 '-다'의 통합체인 '이다'가 꽤 자유롭게 나타난다.(졸고 1998ㄱ: 41)

開士ㅣ尸 爲のしンㅣナコし 我ㄱ 八住ヒ 菩薩ㅣ尸 爲のしンㅣハ白ろコのㅠ 今ンㄱ 於我ㄹ 前ミ十ンミ 大師子吼しンナトㅣ <11: 20-22>

(2) 佛ㄱ 大王ㄹ十 告ニ尸 汝ㄱ [於]過去ヒ 七佛十 已ミ 一ㅣヒヒ 義ミ 二ㅣヒヒ 義ミノし 問白ミハニフㅣㅠ 汝ㄱ 今ンㄱ 聽ノ尸 無ヒか 我ㄱ 今ンㄱ 說ノ尸 無ヒ白ろㅣ <14: 20-21>

일반적으로 구결자 'ㅣ'는 평서법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는데 사용된 것인데, (1)의 두 'ㅣ'는 오히려 선어말 요소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예이다. 문맥으로 볼 때는 물론이거니와, 'ㅣ'의 후행 요소인 'ナ(겨)'나 'ハ(ㄱ~기)'가 주로 선어말 요소를 표기한 구결자들이기 때문에 이때의 'ㅣ'가 선어말어미, 정확히 말하면 회상법의 '-더-'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남성우·정재영 1998: 217-218). 그러나 이렇게 보면 모든 석독구결 자료를 통틀어 회상법의 '-더-'를 표기한 경우가 이 두 경우뿐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가, '-白-'이 용언 어간이 아닌 선어말 요소 뒤에 통합한 유일례가 되고, 'ㅣ' 뒤에 상위문의 'ンㅎ-'(또는 'ノ호-') 외에 다른 요소가 온 유일한 경우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도 문제로 남는다(백두현 1995: 98-99). 그렇다고 이때의 'ㅣ'를 종결어미 '-다'라고 보면 후행하는 'ナ', 'ハ' 등을 용언 어간형이라고 보아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ㅣ'를 종결어미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때의 'ナ'를 15세기의 '-거-'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면(백두현 1997: 91), 15세기에는 '-거-'와 '-더-'는 계열관계를 이룬 선어말어미들인데, 이들과 문법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ㅣ'와 'ナ'가 (1)에서는 통합되어 있어 'ㅣ'를 선어말어미 '-더-'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기에는 문법사적으로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2)는 '-다'의 이형태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이다. 15세기에는 '-다'가 계사 어간 뒤에서는 '-라'로 교체되므로 (2)의 '-라'를 '-다'의 이형태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舊仁》에서 보이는 '-ㅣㅠ(이라)'의 '-ㅠ'는 모두 종결어미적 해석은 물론 연결어미적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2)는 특히 연결어미적 해석이 타당해 보이는 경

우이다. 따라서 《舊仁》의 '-ㅠ'를 쉽게 '-ㅣ'의 이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승재(1994)에서는 이들을 '-다'의 이형태로 보았고, 졸고(1998ㄱ)에서도 이 해석을 수용한 바 있으나, 문맥을 고려할 때 연결어미 '-라'(←'-아/어')에 해당하는 요소일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2. 설명법 어미의 용법

앞서 용언이나 계사 어간에 '-ㅣ'가 직접 통합한 경우는 대부분 피인용절 등의 하위문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3) ㄱ. 若七 言ニ尸 無七ㅣ ソニろ王尸のㄱ[者] 智ㄱ 二リ方 應七ソㄱ 不矢リロしカ 若七 言ニ尸 有七ㅣ ソニロ王尸のㄱ[者] 智ㄱ 一リ方應七ソㄱ 不矢ろㅣ <14: 18-19>

ㄴ. 世尊下 一切菩薩ㄱ 云何七ソㄱし 佛果し 護ソカ 云何七ソㄱし 十地七 行し 護ノ今七 因緣リㅣ ソロろ今ろ <3: 22-23>

(3′) 二し 求ノㄱム 得ょろ方可七ソㄱ 不矢カ 謂ノ今 非矢リㅣ <15: 4-5>

(3ㄱ)은 동사 어간 '有七(잇)-', 형용사 어간 '無七(없)-'이, 그리고 (3ㄴ)은 계사 어간 'リ(이)-'가 '-ㅣ(다)'와 직접 통합한 예이다. 이들은 모두 상위문의 동사 'ソ(ᄒᆞ)-'에 내포된 피인용문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장은 특정한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문장으로서 여기의 '-ㅣ'에서는 "단순 서술"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3′)은 계사 어간에 '-ㅣ'가 직접 통합한 평서형이 상위문에 온 경우인데 여기에서도 "단순 서술"의 의미만이 파악된다.

형용사 어간에도 직접 '-ㅣ'가 통합하는 일은 적고, 사이에 대부분 '-ナ(겨)-'를 개재시킨 채 나타나고 있어 특이하다.

(4) ㄱ. 一切法 空ソㄱのし 以ょの〻[故ノ] 空カ 空ソナㅣ <15: 14>

ㄴ. 菩薩ㅣ 衆生ᄋᆞᆯ 化ᄒᆞ尸[爲] 此 若ㅣᄂᆞᆫᄃᆞ ᄉᆞᄆᆞᄒᆞ <14: 14>

(4ㄱ)은 상위문에, (4ㄴ)은 하위문에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평서문의 경우인데 모두 '-ᄂᆞᆫ-'를 개재시키고 있다. 15세기 국어를 고려할 때 이때의 서술어에는 그대로 '-다'가 통합할 수 있을 듯이 보이는데 예외 없이 '-ᄂᆞᆫ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종결형은 어간이 동사나 계사일 때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에 의해 종결된 평서문 가운데에 앞에 '-ᄒᆞ시(읍)-'이 통합한 '-ᄒᆞ시ㅣ(읍다)'는 독특한 표현 가치를 갖는다.

(5) ㄱ. 菩薩ㅣ 成佛ᄒᆞ샤ᄆᆞᆫ 時ᄒᆞ 煩惱ᄒᆞ 以ᄒᆞ 菩提 爲ᄒᆞᄂᆞᆫ다ㅣ <15: 18-19>

ㄴ. 吾ㅣ 今ᄉᆞᆷ 先ᄒᆞ 諸ㅣ 菩薩 爲ᄒᆞᄒᆞ 佛果ᄒᆞ 護ᄒᆞᄉᆞᆸ 因緣ᄒᆞ 十地ᄋᆞᆫ 行ᄒᆞ 護ᄒᆞᄉᆞᆸ 因緣ᄒᆞᄉᆞᆫ 說白ᄒᆞᄒᆞ시ㅣ <3: 18-19>

ㄷ. 一切衆生ㅣ 暫ᄒᆞ火ᄋᆞᆫ 報ᄒᆞ 住ᄉᆞᄆᆞᄒᆞ 金剛原ᄒᆞ 登ᄉᆞᆫ다ᄒᆞᄆᆞᄒᆞ 淨土ᄒᆞ 居ᄉᆞᄒᆞᄒᆞ시ㅣ <11: 7>

(5ㄱ)과 (5ㄴ)에서는 "…해야 하는 법이다", 또는 "…함이 마땅하다" 정도의 당위적 의미가 발견된다. 그 결과 (5ㄱ)에서는 그 언표내적 효력이 명령에 가까운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5ㄴ)은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함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쓴 경우로서, 그 결과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것처럼 해석된다.[5] (5ㄷ)은 "…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박진호 1997, 남성우·정재영 1998), 그 문맥은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종결형 '-ᄒᆞ시ㅣ'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맥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는 또 다른 당위성 표현으로 '-尸矣ナ丁ㅣ(ㅁ디견이다)'도 나타나지만(졸고 1998

5) 박진호(1997), 남성우·정재영(1998)에서는 이 경우 '화자의 의지 표현'으로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가치가 "당위성" 표현과 결코 다른 것일 수는 없을 듯하다.

ㄱ:49), 《舊仁》에서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3. 감탄법 어미

3.1. 감탄법 어미의 분석

《舊仁》에서 찾을 수 있는 감탄법 어미로는 '-ㄱㅜㅜ/ㄱㅓ(ㄴ더)', '-ㅍㅜ(ㅍo더)', '-ㅊㅓ(ㅅ더)' 등이 있다.[6] 이들이 어간이나 선어말 요소들과 통합한 예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선행 어간 / 선접 요소	ᄒᆞ-	하-	이-
∅	ᄒᆞᆷ더 (ᄂᆞᄆᆞㅜ) ᄒᆞ더 (作ᄂᆞᄎᆞㅓ)		인더 (ㅣㄱㅜㅜ)
-ㅎ(오)-		하온더 (無ㅅㄱㅜㅜ), 하시온더 (善ㄴㅎㄱㅓ)	

《舊仁》에서는 '-ㄴ더', '-ㄹ더', '-ㅅ더' 등이 사용된 예 자체가 많지 않으며, 특히 선어말 요소를 앞에 통합시킨 경우는 극히 드물다.[7]

그런데 이들 형태소들은 외형상으로 볼 때 더 작은 형태소로 분석할

---

6) 석독구결 자료에서 이들 어미 요소가 사용된 문장이 감탄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졸고(1998ㄴ: 61-63)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에서는 우선 '-ㄱㅜㅜ'와 '-ㄱㅓ'를 과연 동일한 형태소에 대한 이표기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이는 'ㅜ'와 'ㅓ'의 독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졸고(1998ㄱ: 37, 1998ㄴ: 63)에서 정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ㄱㅜㅜ'와 '-ㄱㅓ'를 동일 형태소에 대한 이표기로 파악한다.

7)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는 'ᄒᆞ견더', '하숣안더', '이고ᄂᆞ더', 'ᄒᆞ겷더', 'ᄒᆞ앗더' 등과 같이 선어말 요소와 통합한 경우들이 보인다.(졸고 1998ㄱ: 36-39, 1998ㄴ: 64-65)

수 있을 듯이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ㄴ', 'ㅍ', 'ㅅ'이 계열관계를 이룬 듯이 보여 더 잘게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우선 '*ᄒᆞ더', '*하더', '*이더'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말어미 '-*더'를 분석할 수 없다. 한편 석독구결 자료에는 명사적 용법의 '-ㄴ', '-ㅍ'이 많았으므로 이때의 '-더'를 보조사, 또는 첨사류로 분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더'가 다른 명사구에 통합한 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분석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無ぁぐ丁矢ㇾ (화엄 14:15,10)', '講宣令白ロナ丁矢ㅗ (금광 3:15, 4-6)' 등의 '-ㄴ디여'라는 통합체를 고려할 때, '-ㄴ더' 등은 'ㄴ#ᄃ#이+여(~어)'나 'ㄴ#ᄃ#여' 등으로 더 분석될 수는 있을 듯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어도 《舊仁》의 '-ㄴ더' 등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감탄법 종결어미들이다.[8] '-丁矢ㇾ/丁矢ㅗ(ㄴ디여)'는 '-ㄴ더' 등의 기원적 모습을 보여주는 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구결자들은 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비교적 앞선 시기의 자료에 주로 나타날 뿐 늦은 시기의 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9]

'-丁丁(ㄴ더)' 등의 기원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丁矢ㇾ/丁矢ㅗ(ㄴ디여)'에 포함되어 있는 기원적 요소는 'ㄴ#ᄃ#여'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어', 또는 '-*여' 등의 어미를 찾을 수 없어 'ㄴ#ᄃ#이+여

---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8ㄱ: 80-82, 1998ㄴ: 74-75)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9) 지금까지 발굴된 석독구결 자료의 간행 시기를 포함한 서지적 사실은 남권희(1994, 1995, 1996ㄱ,ㄴ) 등에 잘 소개되어 있다. 특히 국어사 자료로서 석독구결 자료의 연대에 대해서는 남풍현(1996ㄴ: 2-6)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均如의 《釋華嚴經敎分記》는 10세기, 《大方廣華嚴經疏》 권35는 11세기말~12세기초, 《新譯華嚴經》 권14는 12세기 후반, 《合部金光明經》 권3은 13세기초, 《舊仁》上은 13세기 중엽, 《瑜伽師地論》 권20은 13세기 후반의 자료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大方廣華嚴經疏》 권35는 현재 미공개 자료여서 본고에서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한편 '-丁矢ㇾ/丁矢ㅗ'는 《新譯華嚴經》에 주로 나타나고 《合部金光明經》에 한 예만이 보일 뿐, 보다 늦은 시기 자료인 《舊仁》, 《瑜伽師地論》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어)'로는 분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기원적인 요소 가운데 '-여'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이는 '-ㅅ(여)'였을 것으로 보인다.

(6) ㄱ. 因緣ᄆᆞᆷ 故ㅣ 誑有ᄂᆞᆫᄀᆞᄅᆡᄀᆞᆺ 幻化ㅣ 幻化ᄒᆞᆫ 衆生ᄋᆞᆯ 見ᄒᆞᄃᆞᆫ 名ᄒᆞᆫ 幻諦ㅅ ᄂᆞᆺᄒᆡᄀᆞᆺ <15: 8>

ㄴ. 一ㅣ ᄂᆞᆫᄆᆞᆫᄃᆞᆫ 亦ᄂᆞᆫ 續ᄂᆞᆷ 不矣ᄀᆞᆺ 異ㅣ ᄂᆞᆫᄆᆞᆫᄃᆞᆫ 亦ᄂᆞᆫ 續ᄂᆞᆷ 不矣ᄃᆞᆫᄋᆞᆷㅅ <14: 7-8>

ㄷ. 世諦ᄃᆞᆫ 幻化ᄋᆞᆷ 起ᄂᆞᆫᄃᆞᆫ 譬ᄋᆞᆫᄃᆞᆫ 虛空ᄒᆞᆫ 花 如ㅣᄂᆞᆷᄀᆞᆺ 影ㅅ 三ᄉᆞᆷᄒᆞᆫ 手ㅣ 無ᄂᆞᆫᄃᆞᆫ ᄂᆞᆷᄋᆞᆫ 如ㅣᄂᆞᆷᄀᆞᆺ ᄂᆞᆫᄃᆞㅅ <15: 7>

ㄷ'. 於解ᄒᆞᆫ 常ㅣ 自ᄆᆞᆷ 一ㅣᄀᆞᆺ 於諦ᄒᆞᆫ 常ㅣ 自ᄒᆞᆷ 二ㅣᄀᆞᆫᄃᆞᆫ ᄒᆞᆫ ㅣ ᄂᆞᆫ 此ㅣ 無二ᄂᆞᆫᄃᆞᆫ 通達ᄂᆞᆫᄒᆞᆫᄃᆞᆫ 眞ᄒᆞᆫ 第一義ᄒᆞᆫ 入ᄂᆞᆷᄒᆞᆫᄀᆞᆫᄃᆞᆫ ᄂᆞᆺᄒᆞᆫ ㅣ <15: 5-6>

ㄹ. 菩薩ㅣ 成佛ᄂᆞᆫᄃᆞᆺ 未ㅣᄂᆞᆫᄇᆞᆫᄒᆞᆫ 時ᄒᆞᆫ 菩提ᄋᆞᆯ 以ᄒᆞᆫ 煩惱 爲ᄒᆞᆫᄃᆞᆺ ㅅ 菩薩ㅣ 成佛ᄂᆞᆷᄀᆞᆫᄇᆞᆫᄒᆞᆫ 時ᄒᆞᆫ 煩惱ᄋᆞᆯ 以ᄒᆞᆫ 菩提 爲ᄒᆞᆫᄒᆞᆫᄒᆞᆫ ㅣ <15: 18-19>

(6)의 모든 예문들에서 '-ㅅ'는 모두 명사구에 직접 통합되어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물론 (6ㄷ')과 같이 어미처럼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때의 구결토는 결코 기원적인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여기의 'ㅣ'는 계사 어간 '(-)이-'가 아닌 의존명사 '이'의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6ㄷ')을 (6ㄷ)과 비교해 볼 때 'ㅣ(이)'는 잉여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동명사형 어미 '-ㄱ(ㄴ)'과 '-ᄃᆞ(ᄆᆞ)' 뒤에 잉여적인 'ㅣ'가 통합한 구결토는 보다 늦은 시기의 자료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오히려 앞선 시기 자료에서는 (6ㄷ), (6ㄹ)과 같이 '-ㄱ', '-ᄃᆞ'에 '-ㅅ'가 직접 통합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6ㄷ')은 '-ㄱ', '-ᄃᆞ'의 동명사적 용법이 약화되어 감에 따른 통사적 파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ㅣ'를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

여기에서 문제는 (6)의 '-ㅅ'에서 "감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문맥상으로는 오히려 평서법적인 해석이 더 자연스럽게

10)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풍현(1996ㄴ: 3)에서는 이때의 '-ㅅ(여)'를 "-이다" 정도의 의미를 표시하는 종결어미로 파악한 바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감탄"과는 무관한 요소가 문법화하여 감탄법 어미가 되었다는 기묘한 결론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우선 '-ㅅ'가 용언 어간과는 물론, 선어말어미와도 통합한 예를 찾기 어려워 이를 적어도 종결어미로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에 직접 통합하는 보조사, 또는 첨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11] 또한 "감탄"과 "평서", 또는 "서술"은 아주 다른 성격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졸고 1998ㄴ: 68). 이는 《舊仁》을 포함한 석독구결 자료의 '-ㅅ'가 "감탄"과 "평서", 또는 "서술"이 엄격히 분화되지 않은 포괄적 의미를 표시하던 요소였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이러한 '-ㅅ'가 (6)에서와 같이 동명사 어미 '-ㄱ', '-ㄷ'에 직접 통합하면 원래의 포괄적 의미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감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앞에 의존명사 '두'를 더 통합시킨 표현이 '-ㄱ 乡ㅅ' 등이고, 이들이 문법화한 종결어미가 '-ㄱ 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2. 감탄법 어미의 용법

《舊仁》에는 감탄문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보이는 모든 감탄법 종결어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ㄱ 丁/ㄱ 彳(ㄴ더)'이 경우를 보자.

(7) ㄱ. 時十 波斯匿王ㄱ 言ㅁㄴ 善ㅁㄴㄱ 大事七 因緣ㅡ 故ノンㅁㄴ ㅏㄱㅂㄱ丁 ンㅋ<3: 19-20>

ㄴ. 世諦ㄱ 幻化ㅡ 起ンㅁㄴㄱ 體のㄱ … 主ㅎ七 手川 無ノㄱ丁 ノ令 如ㅁンㅎ ンㄱㅅ <15: 7>

---

11) 남풍현(1996ㄴ: 3)에서는 '-ㄷㅅ(ㅁ여)'를 '-ㄷㅎ(ㅁ며)'와 같이 동명사어미가 계사의 매개 없이 어말어미와 통합한 경우로 보고 있으나, '-ㅅ'를 보조사나 첨사로 보면 '-ㄷㅅ'는 '-ㄷㅎ'와 동질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7ㄱ)에서 맨마지막에 있는 상위문 동사 'ン-'에 내포되어 있는 문장은, 부처의 설법을 듣고 바사닉왕이 찬탄하여 말한 전형적인 감탄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ㄱㅕ'와 '-ㄱㄲ'는 분명히 화자의 정감성을 표시하여 문장을 종결하는 감탄법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탄법 어미가 피인용문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7ㄱ)은 분명히 직접 인용문임을 알 수 있다.[12] 또한 (7ㄱ)의 앞 '-ㄱㅕ'에서는 화자의 "정감성"과 "처음 앎"의 의미가 강하게 파악되고, 뒤의 '-ㄱㄲ'에서는 화자의 언급 대상에 대한 강한 "확정적 양태성"이 파악되기는 하지만, 이 예만을 보고 '-ㄱㅕ'와 '-ㄱㄲ'가 다른 의미를 표시하는 별개의 형태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 구결자가 표시한 감탄법 어미 '-ㄴ뎌'가 이러한 의미를 모두 표시할 수 있었다고 파악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졸고 1998ㄴ: 70-71) 한편 (7ㄴ)의 '無ノㄱㄲ'는 피인용문이어서 현대국어적 해석으로는 평서형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대국어에서 감탄문이 피인용될 때 평서문으로 바뀌는 현상 때문에 기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탄'과 '서술'이 그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13] 이렇게 보면 (7ㄴ)의 '-ㄱㄲ'도 (7ㄱ)의 것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감성"과 "확정적 양태성"이 강하게 파악되는 감탄법 종결어미라 할 수 있다.

《舊仁》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과연 감탄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8) ㄱ. 謂ノ仝 非矢ㅂㅣ 二諦ㅂ 一ㅂㅣ ンㄕㄲ 二 非矢ㄱㅂㄕのㄱ 何七ㅅ 得ろ𠀋可七ンチㄕロ ノチㄱのㅆㅅ <15: 5>

---

12)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도 이들 감탄법 어미가 피인용문에 나타나는바, 이는 석독구결문의 인용문들이 직접인용문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13) (7ㄴ)의 '-ㄱㄲ'에 대해 평서법적인 의미 해석도 가능한 듯이 보이는 현상은, '-ㄱㄲ'에 포함되어 있는 기원적 요소 '-ㅅ(여)'의 특성이 '-ㄱㄲ'에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감탄법 종결어미에서 평서법적인 의미 해석도 가능한 현상은 15세기의 감탄법 종결어미 '-게라/에라/애라'에서도 나타난다.

ㄴ. 今日ᄀᆞᆫ 如來ㅣ 大光明ᄒᆞ 放ᄒᆞᄉᆞᄆᆞᄀᆞᆫᄃᆡᄀᆞ 斯毛ᄒᆞᄆᆞᄒᆞ 何ᄒᆞᄉᆞ
ᄀᆞ 事ᄒᆞ 作ᄒᆞᄉᆞᆨᄉᆡ ᄒᆞᄉᆞᄆᆞᄀᆞᆫᄃᆡᄀᆞᆫᄃᆞᄒᆞᄆᆞ ᄒᆞᄆᆞᄒᆞᄂᆞᆫᄀᆞ <2: 23-24>

우선 (8ㄱ)에 대해서는 "(二諦가 하나라고) 하겠는가?" 정도의 의문문적 해석도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졸고(1998ㄴ: 71-72)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여기의 '-ᄀᆞᆫᄃᆡ'를 지닌 문장은 "(말할 바가 아니다.) 二諦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결코 의문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ᄀᆞᆫᄃᆡ'에 포함되어 있는 기원적 요소 '-ᄋᆞ'의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로서,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른 '-ᄀᆞᆫᄃᆡ'와 마찬가지로 감탄법 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감탄법 어미에서는 "처음 앎"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8ㄴ)은 모든 대중들이 서로에게 의문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이때의 '作ᄒᆞᄉᆞᆨᄉᆡ'에 대해서는 문맥상 "이루려고", "이루고자" 정도의 "의도"을 표시하는 연결어미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ᄉᆞᆨᄉᆡ'를 함께 고려할 때에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8ㄴ) 한 경우뿐이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의문법 어미

4.1. 의문법 어미의 분석

15세기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문법 어미들이 《舊仁》에서는 물론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舊仁》에 나타난 의문형은 '-ᄅᆞ(오)'형과 '-ᄋᆞ(아)'형, '-ㅁ(고)'형으로서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선행 어간 / 선접 요소	ᄒᆞ-	하-	이-
ㅌ(ᄂᆞ)		ᄒᆞ고ᄂᆞ오 (何ᄉᆞᆫᄋᆞㅁᄐᆞ)	이온ᄂᆞ아 (ㅣᄅᆞᄀᆞㅌᆞ)
ᄑᆞ(ᄠᅙ)		하ᄫᆞᆷ고 (得ᄅᆞᄒᆞ可ᄉᆞᆫᄎᆞᄑᆞㅁ)	
ᄉᆞ(리)	ᄒᆞ고오리오 (ᄉᆞᆫᄋᆞᄅᆞᄉᆞᄅᆞ) ᄒᆞ고오리아 (ᄉᆞᆫᄋᆞᄅᆞᄉᆞᆞ)		
-ᆞᄀᆞ(앗)-			이앗고 (ㅣᆞᄀᆞㅁ)

이 표에서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의문형에 '-ᄅᆞ(오)'형과 '-ᆞ(아)'형이 있다는 사실이다. 후술되겠지만 《舊仁》을 포함한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15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의문이냐 판정의문이냐에 따른 의문형의 구분이 있었다.(4.2 참고) 또한 명사적 요소에 '-ᄅᆞ(오)', '-ᆞ(아)' 등이 통합하여 의문형을 이룬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위 표에서 '-ᄅᆞ', '-ᆞ' 등에 선접해 있는 요소 'ㅌ(ᄂᆞ)', 'ᄑᆞ(ᄠᅙ)', 'ᄉᆞ(리)' 등은 모두 석독구결 자료에서 명사적 요소로 사용된 것들이다. 우선 'ㅌ'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 요소로 사용된 경우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문형 'ㅣᄅᆞᄀᆞㅌᆞ(이온ᄂᆞ아)'는 그 구성을 볼 때 '-ᆞ' 앞의 요소가 의존명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14] 'ᄑᆞ(ᄠᅙ)'은 동명사 어미로서 석독구결 자료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고(남풍현 1996ㄱ), 'ᄉᆞ(리)'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명사 '이'의 통합체이다(이건식 1996: 32, 졸고 1998ㄱ: 30). 이렇게 보면 《舊仁》의 의문형에 나타난 '-ᆞ', '-ᄅᆞ'는, 15세기의 '-가/아', '-고/오'와 같이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여 의문문으로 문장을 종결하는 의문 보조사, 또는 의문의 첨사라 할 수 있다. 결국 《舊仁》에서 보이는 'ᄉᆞᆫᄋᆞᄅᆞᄉᆞᄅᆞ(ᄒᆞ고오리오)'나 'ᄉᆞᆫᄋᆞᄅᆞᄉᆞᆞ(ᄒᆞ고오리아)'의 '-ᄉᆞᄅᆞ', '-ᄉᆞᆞ'는 결코 15세기의 의문법 어미 '-려/리어/리아', '-료/리오' 등과 대등한 자격을 갖는 어미가

14) 석독구결 자료에서 의존명사로 사용된 'ㅌ'는, '解ᄉᆞᆫᄀᆞㅌᆞᄂᆞ 心ᆞ十 (15, 4)'에서와 같이 항상 앞에 관형사적 용법의 'ᄀᆞ(ㄴ)'에 의해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의문형 '何ᄉᆞᆫᄋᆞㅁᄐᆞᄅᆞ'는 'ㅌ' 앞에 'ᄀᆞ'이 생략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닌 것이다.[15]

표에서 보듯이 《舊仁》에 나타난 의문형만을 가지고는 'ᄂᆞᄒᆞᄑᆞᄆᆞ(ᄒᆞ릷고)'의 '-ㅁ'와 'ᄂᆞᄆᆞᄅᆞᄉᆞᄅᆞ(ᄒᆞ고오리오)'의 '-ㄹ'의 동질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는 'ᄂᆞᄆᆞᄅᆞᄉᆞᄆᆞ(ᄒᆞ고오리고)'도 문증되므로 《舊仁》에서 'ᄂᆞᄆᆞᄅᆞᄉᆞᄅᆞ'의 '-ㄹ'는 '-ㅁ'의 수의적 이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적 요소에 통합하여 의문문을 이루는 요소라는 점에서 앞의 '-ㄹ'와 '-ㅁ'는 동일한 요소라 할 수 있다.(졸고 1998ㄱ: 31)

위 표의 'ᄂᆞᄒᆞᄑᆞᄆᆞ(ᄒᆞ릷고)'와 'ㅣᄀᆞᄂᆞᄆᆞ(이앗고)'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이들은 다른 의문형들과는 사뭇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ᄂᆞᄒᆞᄑᆞᄆᆞ'의 경우 특이하기는 해도 이때의 '-ㅁ'에 대해서도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는 의문 보조사, 또는 첨사라고 설명할 수는 있다. 석독구결 자료의 대부분의 'ᄒᆞ'는 동명사 어미 '-ㅭ'과 계사 어간 '(-)이-'의 통합체이므로, 'ᄂᆞᄒᆞᄑᆞᄆᆞ(ᄒᆞ릷고)'는 'ᄒᆞ+ㅭ#이+ㅭ#고'로 분석된다. 이때 앞의 '-ㅭ'은 관형사적 용법의 것이고, 뒤의 '-ㅭ'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ㅁ'도 의문 보조사, 또는 의문 첨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ᄒᆞ릷고'로 표현되는 의문은 'ᄂᆞᄉᆞᄅᆞ(ᄒᆞ리오)'(←ᄒᆞ+ㅭ#이#오)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잉여적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의문형이 어떤 표현 가치를 위해 나타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ᄉᆞᄅᆞ(리오)'형의 의문형이 존재함에도 또다른 '-ᄑᆞᄆᆞ(ㅭ고)'형의 의문형이 나타났다는 것은 '-ᄑᆞᄆᆞ'가 하나의 의문형 어미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16] 한편 'ㅣᄀᆞᄂᆞᄆᆞ(이앗고)'의 '-ㅁ'는 어미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석독구결의 'ᄂᆞ'이 선행 요소를 명사화시키는 용법을 가졌음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때의 '-ㅁ'를 나머지 의문형의 '-ㅁ'와 마찬가지로 명사구에

15) '-ᄉᆞᄅᆞ'(←ㅭ#이#오)나 '-ᄉᆞᄀᆞ'(←ㅭ#이#아) 등의 통합체가 문법화하여 15세기의 '-려/리어/리아', '-료/리오' 등의 의문법 어미가 만들어졌다.

16) 그러나 현재로서는 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ㅭ고'의 예가 《舊仁》에 나타난 예 하나뿐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직접 통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의문형 'ㅣㅋㅌㅁ'를 평서형 'ㅣㅋㅌㅣ'와 비교하면 '-ㅁ'가 '-ㅣ'와 계열관계를 이루므로 어미 '-ㅁ'를 분석해 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석독구결 자료에서 의문어미로 보이는 '-ㅁ'는 모두 세 번 나타나는데, 항상 'ㅣㅋㅌㅁ'로 나타난다. 곧 '-ㅁ'가 어간에 직접 통합한 '*ㅣㅁ'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선어말어미와 통합한 경우도 보이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의문법 어미는 '-ㅋㅌㅁ(앗고)'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17]

《舊仁》의 다음 문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 요소를 찾을 수 있을 듯이 보이기도 한다.

(9) 何以故のㄱ 衆生 空ソㄱのし 以ぇの〻[故ノ] 得ホ 菩提空し 置ソカ 菩提 空ソㄱのし 以ぇの〻[故ノ] 得ホ 衆生空し 置ソカ ノヨㄱの〻ミ 一切法空ソㄱのし 以ぇの〻[故ノ] 空カ 空ソナㅣ <15: 12-14>

(9′) ㄱ. 云何ヒソㄱ乙 菩薩尸 内施ミ ノ仝ロ [爲]ソナホ尸入ㄱ <華疏35, 10: 13-14>

ㄴ. 何ヒソㄱし [者][爲]五リハロ ノ仝ロ ソナ尸入ㄱ 一者 信根しソカ 二者 慈悲しソカ 三者 求欲心 無カ 四者 一切 衆生し 攝受ソカ 五者 一切 智智し 願求ソカ ソ尸矢ナㄱリㅣ <金光3, 2: 22-24>

(9)에는 앞의 '何'라는 의문사와 호응하는 요소가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아 'ノヨㄱの〻ミ(호린ᄃ로여)'의 '-ミ'를 의문 요소로 보기 쉽다. 그러나 졸고(1998ㄱ: 53-54)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대로 앞의 '何'와 호응하는 요소는 'ノヨㄱの〻ミ' 다음에 생략된 'ノ仝ロ(호리고)'나 'ノ仝ろ' 정도의 '-ロ/ろ'이지 '-ミ'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9)의 '何以故のㄱ'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9′)이다. (9)를 (9′)과 비교해 볼 때, '何以故のㄱ'은 '*何ヒソㄱ[以故](の〻)ミ ノ仝ロ

17)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서 '-ㅋㅌ-'은 대부분 화자의 정감성을 표시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문제를 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분석은 잠정적인 것임을 밝힌다. '-ㅋㅌㅁ(앗고)'의 표현 가치에 대해서는 4.2에서 후술된다.

ᄂᆞᆫᄃᆞᆫᄀᆞ/ᄂᆞᆫᄆᆞᆺᄃᆞᆫᄀᆞ' 정도의 관용적인 생략 표기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 '何'와 호응하는 요소는 생략된 'ᄂᆞᄉᆞ로'의 '-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와 유사한 문맥의 (9'ㄴ)과 비교해 볼 때 (9)의 'ᄂᆞᄒᆞᄀᆞ ᄋᆞᄆᆞᄉᆞ'는 (9'ㄴ)의 'ᄂᆞᄃᆞᆺᄂᆞᄀᆞ ᄲᅵ'에 해당되는 요소로 볼 수 있는바, (9)의 'ᄂᆞᄒᆞᄀᆞ ᄋᆞᄆᆞᄉᆞ'의 '-ᄉᆞ'는 의문법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평서법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舊仁》의 '-ᄉᆞ' 가운데서 의문법 요소로 사용된 경우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4.2. 의문법 어미의 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舊仁》에서는 주로 '-ᄅᆞ(오)'나 '-ᄋᆞ(아)'에 의한 명사문적 의문문이 주로 나타나며, 이들은 설명의문이냐 판정의문이냐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10) ㄱ. 爾ᄉᆡᆫᄀᆞ 時ᄒᆞ 波斯匿王ᄀᆞ 言ᄒᆞᄃᆞᆺ 第一義ᄂᆞᆫ 中ᄋᆞᄒᆞ 世諦 有ᄒᆞᄂᆞᆫ다ᄋᆞᄆᆞᄉᆞ 不矣ᄅᆞᄅᆞᄀᆞᄇᆞᄋᆞᄆᆞᄉᆞ <14: 18>

ㄴ. 世尊ᄒᆞ 一切菩薩ᄀᆞ 云何ᄉᆡᆫᄀᆞᆫᄃᆞ 佛果ᄅᆞ 護ᄂᆞᆫᄀᆞᆫ [云] 何ᄉᆡᆫᄀᆞᆫᄃᆞ 十地ᄂᆞᆫ 行ᄒᆞ 護ᄂᆞᄉᆞᄂᆞᆫ 因緣ᄲᅵ ᄂᆞᆫ다ᄅᆞᄉᆞᄅᆞ <3: 22-23>

(10ㄱ)은 판정의문에 '-ᄋᆞ'가 사용된 경우로서 선정의문의 예이고, (10ㄴ)은 '何ᄉᆡᆫᄀᆞᆫᄃᆞ(엇ᄒᆞᆫ을?)'이라는 의문사가 쓰인 설명의문에 '-ᄅᆞ'가 사용된 예이다. (10ㄱ)의 '-ᄉᆞᄋᆞ(리아)'나 (10ㄴ)의 '-ᄉᆞᄅᆞ(리오)'가 결코 15세기의 '-려/리어/리아', '-료/리오'와 같은 의문법 어미일 수 없고, 관형사적 용법의 '-ᄆᆞᆺ(ㅎ)'과 의존명사 '이'의 통합체 'ᄉᆞ'에 의문의 보조사, 또는 첨사 '-ᄋᆞ', '-ᄅᆞ'가 통합된 것임은 앞서 밝힌 바 있다. 특히 (10)에서는 상대 높임법과 관련된 사실이 주목될 수 있다. (10)은 모두 바사닉왕이 부처에게 말하는 장면에 나타난 문장으로서, 바사닉왕은 청자인 부처를 '世尊ᄒᆞ'와 같은 존칭 호격으로 높이고 있다. 15세기에는 이런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10)에서는 아무런 상대 높임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의문의 보조사, 또는 첨사 '-ㅇ', '-ㄹ'가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로 어미에 의해 표시되는 상대 높임 요소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밖에 《舊仁》에서는 15세기와 비교하여 간접의문과 직접의문의 구분이나 2인칭 의문 등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18] 그런데 《舊仁》에는 15세기의 간접의문과 외형이나 용법상 일치하는 듯이 보이는 예가 나타난다.

(11) 二 非矣ㄱㅣㄹ尸の丁 何七ㅇ 得ろ方 可七ンチ尸ロ ノチ丁のㅅㅇ <15: 5>

(11)의 '-尸ロ(ㅁ고)'는 외형상 15세기의 간접의문 어미 '-ㄹ고'와 일치하며, 문맥상으로도 이는 부처의 일방적 설법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서 특정한 청자를 대상으로 한 의문이 아니다. 따라서 (11)은 간접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때의 '-尸ロ'를 15세기의 '-ㄹ고'와 일치하는 의문법 어미일 가능성이 있다.[19]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11)의 '-尸ロ'의 '-ロ'에 대해서도 의문의 보조사, 또는 첨사로 보는 것이 다른 의문 요소들과의 균형에 맞는다. 바로 이러한 통합체에서 15세기의 '-ㄹ고' 등의 의문법 어미가 문법화했다고 할 수 있다.

《舊仁》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문형 'ㅣろ七ロ(이앗고)'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2) 今日ろ十 如來ㅣ 大光明し 放ンニトろ丁のㄱ 斯毛ンㅌハ 何七ンㄱ 事し 作ンセイ ンニトㄱㅣろ七ロ ンヒハニか <2: 23-24>

(12)는 모든 대중이 부처가 지난 29년 동안 여러 가지 설법을 했음에도

18) 이는 모든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졸고 1998ㄱ: 51-52)

19) 정재영(1995: 225)에서는 이때의 '-尸ロ(ㅁ고)'를 의문법 어미 '-ㄹ고'의 유일례로 든 바 있다.

또 다시 광명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서로에게 의문을 표시하는 장면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의문형이 어느 정도로 상대를 높이고 있는지 이 예만을 보아서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서로 높일 수도 있고, 높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나타난 '-ㅣ七ㅁ(앗고)'는 분명히 상대를 높이는 장면에 사용되었음으로 미루어(졸고 1998ㄱ: 52), (12)는 대중이 상대를 서로 높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앞의 (10)에서 '-ㅣ', '-ㄹ' 등이 상대를 높일 수 없는 것이었음에 비해 '-ㅣ七ㅁ'는 상대를 높이는 요소인 것이다. 또한 (12)에서는 의문사 '何七ㅅㄱ(엿흔?)'이 있는 설명의문인데 여기에 'ㅁ'형이 나타나고 있어, 판정의문에서는 '-*ㅣ七可(앗가)' 정도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舊仁》은 물론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이는 문증되지 않는다.

5. 명령법 어미

《舊仁》에서는 명령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워낙 적은 양의 자료인데다가 그 문맥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당시에 존재했던 명령법 어미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 등을 검토해 보면 이 시기에 명령법 어미로서 '-*라'[20]와 '-ㅛ(셔)'가 존재했고, '-ㅛ'가 석독구결 자료에서 '-ㅌㅛ'나 '-ㅁㅅㅎㅛ(고기시셔)'의 모습으로 사용되었으며, 상대 높임법 등급상 '-ㅛ'는 '-*라'보다 높은 등급을 표시하고 이보다 높은 등급의 표현에 '-ㅁㅅㅎㅛ'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졸고 1997)

명령법 어미의 분석 문제와 관련하여 《舊仁》에 보이는 다음 (13)의 문장은 매우 흥미롭다.

(13) 諦ㅣ 聽ホ 諦ㅣ 聽ㅁ 善ㅁ 之し 思ㅅㅎ 念ㅅㅎ ㅅㅁ 法し 如ㅁ 修

20)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라'가 문증되지 않는다. 이 명령법 어미는 《鷄林類事》 등 이 시기의 다른 자료들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1997: 100-101) 참조.

行ンカ ンナ ン ソロハニ 7 時十 <3: 19>
(13′) 諦聽諦聽カ 善カ 之シ 思ンキ 念ンキ ンカ 法シ 如ゼ 修行ンナ ン
七佛ヒ 偈リ 是 如ㅣンナㅣ <14: 21-23>

우선 (13)은 부처가 대중에게 설법하면서 앞으로 佛果와 十地行을 지킬 인연에 대해 말할 터이니 잘 들으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13)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염원하며 법을 법답게 수행하여라.' (라고) 하신 때에" 정도로 해석된다. 더욱이 구결자 '-ナ ン(겨아)'의 原字는 '-在良'인데, 이 借字는 균여 향가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던 '-去良'과 매우 유사하다.[21] 이렇게 보면 《舊仁》의 (13)도 명령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명령법 어미 '- ン(*라)'를 분석해 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13′)에서 보듯이 똑같은 구결자 '-ナ ン(겨아)'가 "…해야" 정도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석독구결 자료인 《新譯華嚴經》 등을 함께 고려하면 오히려 '-ナ ン'는 연결어미적인 요소로 사용된 경우가 더 많아 문제가 된다. 만일 (13)의 '-ナ ン'를 명령형으로 본다면 이것이 유일한 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13)의 '-ナ ン'를 쉽게 명령형으로 보기는 어렵다.[22]

6. 청유법 어미

앞의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舊仁》에는 청유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청유문은 석독구결 자료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몇 개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자료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유문 자체가 나

21) 발표 당시는 물론 졸고(1997: 102-103)에서도 '-ナ ン'의 原字를 '-去良'이라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착오이다. 이 기회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로 하며, 이 사실을 지적해 준 이장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2) 이에 대해서 졸고(1997:103)에서는 'ンナ ン(ᄒᆞ겨아)'와 'ソロハニ 7 [ᄒᆞ곡(~고기)신]' 사이에 "당위"의 'ンナヵヒㅣ(ᄒᆞ겸짜)'나 'ノ尸 矢ナ 7 ㅣㅣ(홈 디 견이다)' 정도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문장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舊仁》에서는 청유법 어미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시기의 다른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당시에 청유법 어미로 '-ᄒᆞ(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실제로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청유법 어미로 보이는 '-ᄒᆞ'가 발견되기도 한다.(졸고 1998ㄱ:39, 86-87)

7.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舊仁》에 나타난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1. 설명법 어미로는 '-ㅣ'가 있는데, 이는 15세기의 '-다'와 별 차이 없는 용법을 보이고 있다. 이 어미는 용언이나 계사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사이에 '-ㅏ-'를 개재시킨다. 또한 15세기에는 극히 드물게 보이는 '-ㅎㅓㅣ'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어 "당위", "의지", "가능성" 정도의 의미를 표시했다.
2. 감탄법 어미로는 '-ㄱㅜ/ㄱㅕ', '-ㅁㅜ', '-ㅓㅕ'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원적으로 '-ㄱᄉᆞᆞ'라는 통합체에서 문법화한 것이다. 기원적인 요소 '-ᄉᆞ'의 성격이 이들 감탄법 어미에 여전히 남아 있어 '-ㄱㅜ'의 경우는 평서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ㅁㅜ', '-ㅓㅕ'는 《舊仁》의 예만으로는 감탄법 어미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자료들을 살펴볼 때 이들을 감탄법 어미로 보아야 한다.
3. 의문법을 만드는 요소로는 어미가 아니라 의문의 보조사, 또는 첨사 '-ᄋᆞ', '-ㄹ/ㅁ'가 주로 사용되었고, '-ᄋᆞㅓㅁ'만이 하나의 어미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ᄋᆞ'와 '-ㄹ'는 설명의문이냐 판정의문이냐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ㅅᄒᆞㅁㅁ'는 15세기의 '-ㄹ고'와 외형상으로나 사용 문맥상 매우 유사하지만 이때의 '-ㅁㅁ'를 하나의 어미로 분

석하기보다는 이때의 '-ㅁ'도 '-ㅎ' 등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 요소는 상대 높임을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ㅣㄷㅁ'는 상대를 높이는 의문법 어미이다.

4. 명령법 어미와 청유법 어미는 《舊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명령법 어미와 관련하여 《舊仁》의 '-ㅏㅣ'가 주목되지만, 다른 자료들은 물론 같은 《舊仁》에 나타나는 다른 '-ㅏㅣ'와 비교해 볼 때 이를 명령법 어미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참고문헌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구결연구 3.

김두찬(1997), "구역인왕경 구결 해독 시고", 구결연구 2.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영만(1986), "구역인왕경의 석독 표기 소고(1)",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남성우·정재영(1998),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남권희(1994), "고려본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의 서지학적 고찰", 1994년도 구결. 연구회여름공동발표회 발표요지.

남권희(1995), "고려 석독구결 자료 《金光明經》 권3의 서지적 분석",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요지.

남권희(1996ㄱ), "고려 구결자료 《大方廣佛華嚴經》 권 제14의 서지적 분석", 구결연구 1.

남권희(1996ㄴ), "금강반야바라밀경 구결자료의 서지적 고찰", 구결학회 96년공동연구회발표요지.

남풍현(1986), "구역인왕경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남풍현(1990), "고려말 조선초기의 구결연구", 진단학보 69.

남풍현(1993), "고려본 瑜伽師地論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대 동방학연구소.

남풍현(1996ㄱ),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ㅏ/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남풍현(1996ㄴ),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남풍현·심재기(1976), "구역인왕경의 구결연구", 동양학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박진호(1997),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7권 4호.
백두현(1995), "고려 시대 석독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ㅋ-',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경북어문학회.
백두현(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서태룡(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심재기(1975), "구역인왕경 상 구결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안병희(1967), "문법사-한국어 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안병희(1976), "구결과 한문훈독에 대하여", 진단학보 41.
안병희(1987), "均如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이건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이동림(1982), "구역인왕경의 구결 해독을 위하여", 논문집 21, 동국대학교.
이승재(1991), "향가의 '遣只賜'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ㅁㅏㄴ'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이승재(1994),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 78.
이승재(1995),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이승재(1996),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 '-ナ(겨)-'",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이승재(1998),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경어법 체계",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윤희(1997), "석독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구결연구 2.
장윤희(1998ㄱ),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박사 학위논문.
장윤희(1998ㄴ),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구결연구 4.
정재영(1992), "통합형 어미 '-ㄴ든'과 '-ㄴ뎌'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정재영(1996ㄱ), "종결어미 '-쇼'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정재영(1996ㄴ),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태학사.
허 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